

# 또 개학연기? 단체급식업체 “폐기앞둔 식자재 창고 가득”

## 외식·급식업계 1분기 실적

**CJ프레시웨이 매출 전년비 19% ↓**  
**현대그린푸드 자회사 성과에 매출 ↑**  
**신세계푸드 매출·영업익 모두 감소**

외식업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 및 단체급식 업계가 우울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학연기·재택근무로 외식이 줄고 학교 급식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예년과 달리 실적악화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된데다가 개학이 다가오면서 그나마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 코로나 집단감염이 재발하고 개학연기가 장기화되면서 2분기도 우울한 실적이 예상된다. 매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던 외식이 급감하고 급식이 중단되면서 식자재만 폐기만 앞둔



개학연기가 장기화되면서 급식이 시행되지 않아 식자재 유통업체가 매출 타격을 입었다.

/연합뉴스

채 창고에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급식업계 1위인 삼성웰스토리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22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90억 원으로 14% 감소했다. 대학 학생식당 및 병원 등 주요 단체급식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CJ프레시웨이도 외식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9% 감소한 6025억 원, 영업손실은 126억 원을 기록했다. 식자재 유통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479억 원을 기록했으며 단체급식 부문도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이 약 2% 감소한 1013억 원으로 집계됐다.

CJ프레시웨이 주요사업인 외식산업의 침체와 단체급식 사업에선 병원과 컨디션(식음료 위탁운영) 등의 식수 감소가 영향이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나마 최근 수요가 확대한 가

정간편식(HMR) 관련 원재료 공급에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위안거리다.

현대그린푸드도 코로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현대그린푸드의 올 1분기 매출액 8347억 원, 영업이익 310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1%, 15.4%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현대리바트와 건설중장비제조사 에버다임과 같은 자회사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덕분이다. 정작 별도기준 1분기 매출액은 3806억 원으로 전년 동기과 같았고,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14.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식 및 외식사업 부문 매출이 하락하며 B2B(기업 간 거래)가 부진했다. 여기에 관련 판관비는 증가하며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됐다. 다만 성남 스마트푸드센터 설립에 따른 케어푸드 ‘그리팅’ 진출과 급식사업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신세계푸드 역시 코로나 여파로 단체급식 사업장 식수가 감소한 데 따른 타격이 크다. 신세계푸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푸드 외식사업 부문과 학교 단체급식의 영업손실은 각각 46억 원, 12억 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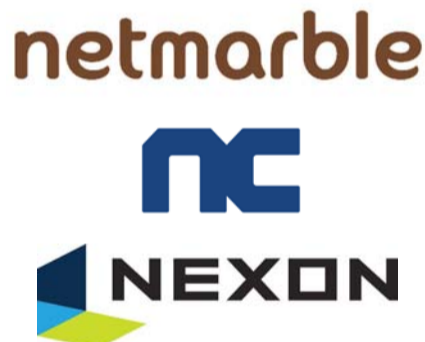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업계의 한숨은 더욱 짙어졌다.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추가 연기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소비심리도 자칫 위축하며 외식 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적이 예외적으로 과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사태로부터 벗어나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학·개원이 이뤄지고 외식소비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야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1·4분기 성적표 받은 ‘3N’ 국내매출 높은 엔씨만 好好

**넥슨 中 매출 급감… 영업익 21% ↓**  
**넷마블 신작 마케팅에 지출 상승**  
**엔씨 국내 매출 비중 높아 최고실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콕족’이 늘면서 게임 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상 1·4분기 성적표를 보니 각 사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대표 게임사 ‘3N’ 중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의 힘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세 배를 넘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넥슨과 넷마블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1·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넥슨은 올 1·4분기 매출은 9045억원, 영업이익 45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21% 줄어 들었다.

넥슨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던전앤파이터(던파)’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

기 때문이다. 던파는 넥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정도로 핵심 수익원이다. 특히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초 중국 일부 지역에서 PC방이 폐쇄되면서 던파를 포함해 PC 매출이 급감했다. 넥슨의 중국 지역 매출은 올 1분기 334억9900만엔(3661억원)으로 전년동기 575억5000만엔(6290억원) 대비 41.8% 줄었다.

넷마블은 1·4분기 신작 게임 출시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넷마블은 올 1·4분기 매

출 5329억원, 영업이익 20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4%, 60.1% 줄었다. 넷마블 또한 국내 보다 해외매출 비중이 높다. 1·4분기 매출 중 해외매출 비중은 71%를 차지한다.

반면, 넥슨, 넷마블과 달리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흥행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엔씨소프트는 올 1·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311억원, 영업이익 241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04%, 204% 늘었다. 특히 리니지2M 출시 효과가 반영된 모바일 게임 매출은 5532억원을 기록해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54% 증가했다. 그 중 리니지2M은 3411억원, 리니지M은 2120억원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의 올 1·4분기 국내 매출은 6345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87%에 달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설 방침이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해외 출시는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농림부 “세계 주요 곡물 공급 충분”

AMIS 정보 활용 농산물 시장 모니터링 호주·인도 등 일부 국가 생산량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아직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 개최한 G20특별농업장관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중요하게 평가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의 정보를 활용해 세계 주요 농산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MIS에 따르면,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난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곡물에 대한 세계 수요-공급 전

망을 보면, 밀은 2020/21년도 생산량은 7억6260만톤으로 사상 두 번째 최고치인 전년(7억6240만톤)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반등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밀 소비량은 전년과 비교해 정체 상태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사료 및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식량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은 2019/20년도 생산량이 5억1120만톤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캄보디아, 말리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생산면적 감소와 파키스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인해 전월보다 줄었다.

/한용수 기자 hys@

## 지원금도 끊길 경우 구조조정 불가피

» 3면 ‘길어지는 항공사...’서 계속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뒤 업황이 정상화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14일 기준 131명에 달해, 또 다시 외국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심사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길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구조 속에서 항공업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미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지난 달 총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신청받

고, 전체 직원 1600명 가운데 345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을 택한 것은 급여를 회사에서 선 지급하고 정부가 후 지원해주는 방식을 운용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임금삭감 폭을 늘리는 안을 사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학사관리 과정 차질... 등교 계속 미룰 수 없어”

» 1면 ‘클럽發 코로나 감염...’서 계속

아울러 “한 반에 학생수가 많은 경우, 옆의 교실로 분반을 해서 ‘미러링 수업’을 할 수 있다”며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옆 교실에서 TV모니터 등으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교 수업이 추가 연기되지 않을 경우 고3은 오는 20일 등교수업을 한다. 이어 고2·중3·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이 27일 등교한다. 고1·중2·초등 3~4학년은 다음달 3일, 중1·초등 5~6학년은 다음달 8일 학교에 간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일주일씩 개학과

등교를 미루는 상황에 대한 피로도가 크다. 일주일 단위로 연기하기보다는 1학기 동안 원격수업, 9월 학기제를 검토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시흥시 중3 학부모 박희정 씨는 “등교 수업을 목전에 두고 긴급히 1~2주 단위로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다”라면서 “차라리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든지, 9월학기제 시행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등교가 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실제 전면적인 등교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는 원격수업 비중을 대거 높인 ‘혼합형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현진 기자 ihj@